

지난해보다 6% 증가

맞춤형 농지지원 8124억

농지매입사업 3077억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 생애주기에 맞춘 농지은행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농의 농지확보와 기존 농업인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미래를'이라는 농지은행 슬로건을 마련하고, 농지은행사업에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농지은행 사업예산의 58%인 8124억원을 맞춤형 농지지원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 또는 이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등에 임차한다. 또한 농지규모화사업은 농가가 영농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 매매와 임대를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19만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청년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한 것으로 자체 진단했다.

이와 함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도 3077억원을 투입한다. 자연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농업인의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도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농가가 최장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받아 경작하면서 환매도 가능하다. 200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000여 농가가 경영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에는 2106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상향한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가입연령 또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지난해까지 1만9000여명이 가입해 월평균 9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다. 기존 농지은행사업 중심 체계에서 농지 상시 관리조사 사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지자체 농지관리업무도 지원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을 통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조기 정착을 통해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해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